

알리는 말씀



1. 2027년 1월 우간다 단기 선교팀에 조인할 단원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찬양팀, 특수교사, 소셜워커, 의료봉사팀(한방/양방/치과), 전도단원, 등

장애 관련 소식

1. PBS는 영국 드라마 《Patience》의 새 시즌을 이번 여름 방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자폐를 가진 여성 패이션스 에반스(Patience Evans)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녀는 영국 요크(York) 시의 범죄 기록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한 형사가 그녀의 뛰어난 관찰력과 세밀한 분석능력을 발견하면서 복잡한 범죄 수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적장애인에게 사형(?)

지적장애를 가진 사형수의 사형 집행 가능 여부를 두고 'IQ(지능지수) 점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부의 판단은 IQ 70을 지적장애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주인공 조셉 클리프턴 스미스(Joseph Clifton Smith)는 1997년 앨라배마주에서 강도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이 2002년 "지적장애인의 사형 집행은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면서, 스미스 측은 본인이 지적장애인이라며 사형 집행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 (경계선 IQ 논란):** 앨라배마주법상 지적장애의 기준은 대개 IQ 70 이하입니다. 하지만 스미스가 평생 받은 5번의 IQ 테스트 점수는 72, 74, 75, 74, 78로 모두 70을 조금 웃돌았습니다.

●**하급심의 판단:** 하급법원은 IQ 테스트의 오차범위(±3~5점)를 감안하면 그의 실제 IQ가 69까지 떨어질 수 있고, 그가 유년 시절 특수반에 속했던 점, 성인이 되어서도 유치원 수준의 수학과 초등학교 수준의 독해력만 가졌던 점 등 '적응 능력 결핍'을 종합(총체적 평가)하여 지적장애인이 맞으므로 사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앨라배마주 정부는 복수의 IQ 점수가 모두 70 이상으로 일정하게 나왔으므로 지적장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가, 결국 '각하(Dismissed as improvidently granted)'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 절차나 기록상 이 사건이 IQ 해석 기준을 새로 정립하기에 적절한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로써 스미스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여 사형 집행을 면하게 한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지적장애인의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시각 요약

미국 사법부(특히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지적장애인의 범죄와 처벌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형벌의 목적(인과응보·범죄예방)에 부합하지 않음

기도제목나눔



1. 조이우간다 특수교육 통합학교 설립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헌신자들을 위해
2. 조이장애선교회 산하 각국의 장애인 선교 프로그램에 은혜를 더하소서
3. 조이케냐 음악치료교실 위해
4. 장애인 선교 헌신자를 주시옵소서

후원방법

1. Check로 보내실 경우:
Pay to the order of "Joy Center, Inc.". Memo: _____
2. Zelle, Paypal, Venmo의 경우:
joycenter@hotmail.com
3. 홈페이지를 통하여
www.joycenter.com

We appreciate your gift of love in support of Joy Center, which is a non-profit organization 501(c)(3).



사형이나 엄벌은 본인의 행위가 얼마나 나쁜지 인지하고(인과응보), 처벌이 무서워 죄를 짓지 않는(일반 예방) 통제력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적장애인의 경우 인지 능력과 충동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이들에게 사형을 처하는 것은 형벌의 도덕적 정당성이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② 단순한 '숫자(IQ 70)'가 아닌 '삶의 궤적'을 보는 시각

사법부는 지적장애를 판단할 때 단순히 IQ 점수 하나만 보고 칼로 자르듯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인간의 지능 검사에는 늘 오차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법부는 IQ 점수가 경계선(70~75)에 있다면, 그 사람이 사회에서 글을 읽고, 돈을 관리하고, 소통하는 등의 '실제 적응 능력에 결핍이 있는지'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종합적·총체적으로 평가(Holistic Approach)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③ 보수 진영의 반론 (오용에 대한 우려)

반면, 사법부 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 지적장애 기준을 너무 유연하게 적용할 경우, 중범죄자들이 사형을 피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거나 사법적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번 사건의 소수 의견(반대 의견)에서도 "범죄자가 사형을 피하려고 지적장애인임을 설득하려 했고, 법원이 이에 보답해 준 꼴"이라며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무섭게 퍼지는 에볼라 바이러스

최근 Uganda 와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에서 에볼라가 다시 확산되며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사태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로 선포하였으며, 특히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Bundibugyo 계열 바이러스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유독 빠른 이유는 우리가 익히 알던 에볼라와는 다른, 매우 희귀한 '분디부기오(Bundibugyo)' 변종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변종 앞에서는 그동안 인류가 개발해 둔 백신도, 표준 치료제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감염되면 열 명 중 세 명은 목숨을 잃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지만, 당장 손에 쥘 '치료제'라는 무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기가 없다고 해서 인류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자마자 48시간 만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우리 돈 약 4,300억 원 규모의 전방위적인 마스터플랜을 가동했습니다. 일단 백신이 비어버린 자리를 채우는 것은 결국 '기본'의 힘과 '연대'입니다. 의료진들은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방호복을 입고 현장으로 뛰어들었고, 국경 검문소와 병원 곳곳에는 바이러스를 박멸할 염소 소독액과 체온계가 배치되었습니다. 확진자의 동선을 끝까지 쫓는 추적 조사원들의 발걸음, 그리고 무엇보다 시신을 만지는 오랜 장례 전통까지 잠시 접어두며 방역에 협조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